

배포일시	2020. 12. 11.(금) 17:00 (총 5매)	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예 보 과	담당자	과 장 김 용 상 전문관 이 병 철	전화번호	062-720-0332

14일~15일 전남서해안 많은 눈 내린 후, 추워져

- 13일 전남서해안 비/눈
- 14~15일 전남서해안 최대 15cm 눈(전남내륙 2~7cm)
- 눈길, 빙판길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 대비 철저!
- 눈과 함께 강추위, 14일부터 추위 주의



[12월 13일 예상기압계 모식도]

- 광주지방기상청(청장 이미선)은 14(월)~15일(화) 서해안에 많은 눈과 광주, 전라남도 지역에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전망과 국민에 대한 당부의 목소리를 전했다.

[기압계 전망]

- 광주지방기상청은 고도 약 5km 상공에서 -25℃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다가오겠다고 하며, 이 찬 공기에 의해 서해상에서부터 눈 구름대가 만들어져 우리나라로 유입되고, 기온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.
- 13일은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상에서 발달한 구름의 영향으로 구름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.
- 14일부터는 대륙고기압 확장에 따른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서해상에서 눈 구름대가 발달하고, 15일까지도 이 구름대가 서해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.
- 특히, 이 시기(14~15일)에는 북쪽으로부터 남하한 찬 공기가 광주, 전라남도를 지배함에 따라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.

[14~15일 서해안 많은 눈]

- 14~15일에 광주, 전라남도는 서해상의 눈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찬 공기가 유입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눈 구름대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전남서해안에는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며,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당부하였다.

<예상 적설(14~15일)>

- 전남서해안: 5~15cm / 광주, 전남내륙: 2~7cm

- 또한,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관은 “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가운데 일시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구름대가 자주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, 16일(수) 경에도 전남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”고 덧붙였다.
- 더불어, 광주지방기상청은 눈이 그친 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쌓인 눈이 녹지 않거나 비가 얼어 빙판길이 될 수 있겠다며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사고,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.

[추위 전망]

- 13일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14일은 광주, 전라남도 낮 최고기온이 13일보다 5~10℃ 가량 급격히 내려가 추워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,
- 이 기간(14~15일)에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, 낮 최고기온도 0℃ 내외를 보이는 곳이 많아 추울 것으로 전망하였다.
 - 또한,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체감온도가 9℃ 가량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고,
 - 다음 주에도 한파가 지속되면서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와 비닐하우스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대한 유의도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.

[강풍과 풍랑 전망]

- (강풍) 13일 오후부터 전남서해안은 바람이 32~58km/h(9~16m/s)로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,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25~45km/h(7~12m/s)로 강하게 불면서 14일까지도 바람이 강하겠다고 분석하였다.

- (파도) 13일 오후에는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2~4m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. 강한 바람과 물결은 15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.

- 특히, 서해상은 눈 구름대가 발달하여 시정이 좋지 않은 만큼 해상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고 전하였다.